

1·2등 대합실에 홍지윤의 회화 '애창곡'(종이에 잉크와 아크릴, 200×140×5cm, 2010), 설치 '사랑가'(풍선에 디지털 프린트, 2013) 등이 전시된 모습.



한국화란 무엇인가

옛 서울역은 현재 '문화역서울 284'라는 문화공간으로 바뀌었다. 천장까지 뚫린 중앙홀과 대합실, 역장실, 귀빈실(이상 1층), 대형 그림과 회의실(이상 2층) 등이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다. 차량이 통제돼 많지 않은 행인들만 오가는 역 광장을 가로질러 중앙홀로 통하는 문을 열면, 전관에 걸쳐 대규모 전시가 열리고 있다.

한국디자인공예진흥원이 마련한 '한국화의 경계, 한국화의 확장'전으로, 그 제목처럼 한국화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전시다. 근대 시기에 서양화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개념으로 형성된 한국화는 그 실체가 질료냐, 정신이냐를 놓고 오래전부터 논쟁을 이어왔다. 최근 미술계의 글로벌화, 다양한 기법 실험 속에서 한국화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졌다.

이번 전시는 화선지와 먹을 사용하는 전통 한국화는 물론 서양화, 사진,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원로와 중견작가 29명의 작품을 통해 한국화를 재규정하고자 기획됐다. 근대의 상징인 옛 서울역에서 열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앙홀에는 차기울의 설치작 '순환의 여행/방주와 강목 사이'가 걸려 있다. 방주는 노아의 방주, 강목은 한방서<본초강목>의 강목으로 동서양 문화의 융합, 인간과 자연의 순환구조를 표현했다. 작가가 살고 있는 강화도의 포도나무 줄기를 엮어서 만든 타원형의 작품이 융합과 순환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3등 대합실에는 구본창, 이강소의 작품이 있다. 조선 백자의 아름다움에 주목한 구본창은 수많은 백자들을 일본의 개인과 박물관들이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04년부터 일본 등 세계 주요 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백자를 한자리에 모아 보여주고자 사진작업을 시작했다. 그의 사진 속 백자는 하얀 배경에서 고고하게 빛난다. 이강소도 흑백만으로 자유로운 획과 그 사이를 유행하는 작은 오리를 표현함으로써 무념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추구했다.

복도에는 가벽을 세우고 김선두, 김종학, 박병춘, 유근택, 이재삼, 이종구 등의 그림을 걸었다. 김선두의 화조화는 현대

'한국화의 경계와 확장'전

미술계의 글로벌화와 다양한 기법 실험 속에서 경계가 더욱 더 모호해진 현대 한국화의 정체성 탐구

우종택, '시원의 기억', 소나무에 혼합, 700×500×100cm, 2015

문화역서울 284 제공



적이고 유머러스하다. 김종학은 꽃과 과일을 철판에 철사로 표현했으며, 박병춘은 인도 여행의 감흥을 풍경화에 담았다. 유근택은 사물을 동심원 모양으로 배치해 만다라를 연상시킨다. 목탄으로 달밤의 숲을 표현한 이재삼, 시골 어머니를 그린 이종구는 누구보다 한국성이 뚜렷하다.

1·2등 대합실과 부인 대합실, 역장실, 귀빈실을 차지한 작품들은 공간과 어우러진 게 특징이다. 1·2등 대합실을 채운 홍지윤은 사랑을 주제로 한 회화·설치를 선보인다. 화려한 색동 색깔로 그려진 꽃 그림, 풍선 조각에 사랑을 주제로 한 유행가 가사가 적혀 있고 작가가 직접 부른 노래도 흘러나온다. 부인 대합실의 주인은 원로작가 곽훈이다. 그는 1969년 미대 입학 을 위해 상경했을 때 만났던 서울역을 회고하면서 창호지로 공간 전체를 감싸는 원추형 집을 지었다. 귀빈실은 김태호의 단색조 작품들이 걸려 화려한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룬다. 우종택은 강원도에서 가져온 커다란 나무기둥들로 역장실을 채웠다.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몸을 뒤틀며 자

란 나무들은 은은한 숲 냄새를 내면서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에너지를 뿜는다.

2층의 대형 그림에는 십자형 가벽을 세워 이철주, 송수련, 장상의, 오태학의 작품을 선보인다. 자연을 담고, 내면을 관조하는 전통 한국화의 정신성이 두드러지는 작품들이다. 식당 조리실이었던 곳에는 김호득이 불린 한지를 손으로 뭉쳐 만든 종이 반죽들이 선반 위에 빼곡하다. 이밖에 회의실, 예비실, 복도 벽에 김승영, 오숙환, 서정태, 김선형 등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다.

문학평론가 이어령은 이번 전시에 '접점'이란 부제를 붙였다. 서로 다른 점, 선, 면이 만나면서 모양이 나오듯 한국화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는 뜻이다. "한국 사람이 그리는 모든 것"(곽훈), "다양한 세대가 우리 환경에서 연구하는 모든 결과물"(이강소), "한국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함섭) 등 작가들의 정의도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 30일까지. (02)3407-3500

한윤정 선임기자 yjhan@kyunghyang.com